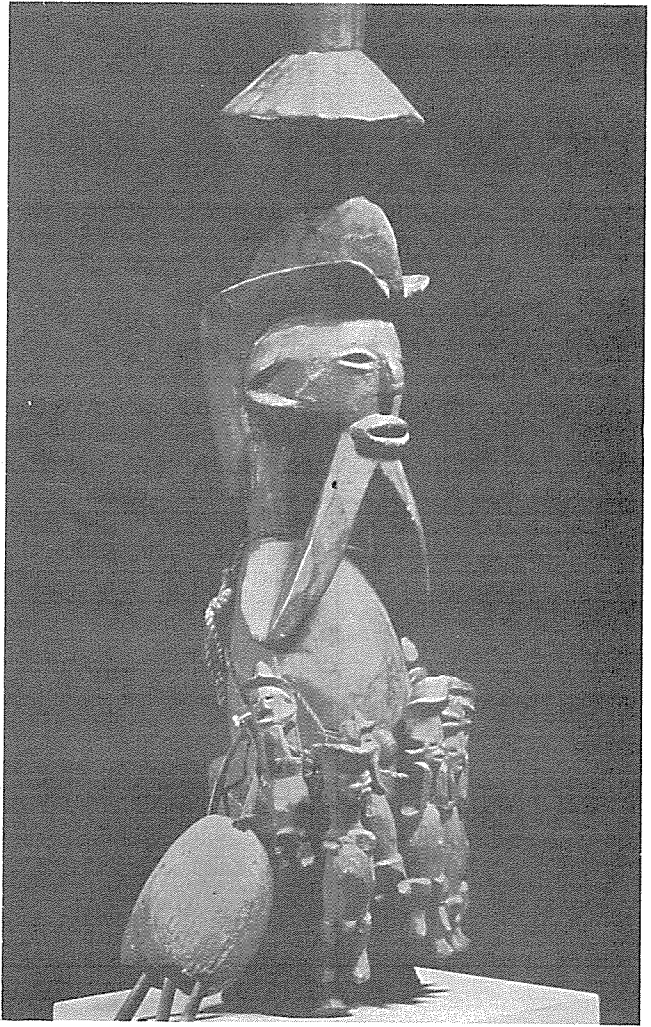


특별기획 시리즈  
제 162 회

금성치과의원 원장  
- 김 규 문 -



呪術주머니

미개인에 있어서 病은 神이나 정령 마법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으며 진단의 목적은 범한 죄나 벌을 가하고 있는 사람 혹은 정령을 밝히는데 있었다. 치료는 때때로 정성드린 의식이나 영창, 신비적인 신호 주문 주물이 뒤섞여 복잡하게 되는 수가 많다. 물론 치료의식의 목적은 악령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혼을 불러내고 노한 신을 달래는데 있었다.

이 인형은 콩고 바흥가아나의 주술용 인형으로서 이것에 힘을 부여하는 작은 주술주머니가 많이 달려있다. 베르린 문화 인류학 박물관(디아렘) 소장